

01 교회소식

“아름다운 천국을 표현하고 싶어요”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 각종 행사 시 성전 곳곳을 아름답게 꾸미는 디자인선교회와 사론선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향을 전한다.

02 생명의 말씀\_ 십계명 시리즈 7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축복을 받으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위적인 간음은 물론 마음의 간음과 영적인 간음을 벗어 버려야 한다.

03 기획특집

이렇게 하면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응답받는 비결을 소개한다.

04 간증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

성경의 복음으로 교회 부흥을 이룬 러시아 세르게이 스타그네 예프 목사와 신경쇠약과 우울증에서 해방된 이정금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661호 2014년 11월 2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주님의 신부들

## 디자인, 사론선교회 주축으로 여장년, 가나안, 청년, 학생, 아동주일학교도 참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몸 된 성전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해 기쁨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이들로 인해 성탄절을 비롯, 추수감사절과 부활절, 창립 기념행사 등 각종 교회 행사가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다. 이들의 섬세한 손길이 닿는 곳마다 멋진 천국 포토존으로 변신해 행복한 날의 추억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성도들의 웃음 소리가 성전에 가득해진다.

‘2014 성탄 점등식을 약 한달 앞두고 우리 교회 각 기관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탄 장식 준비에 한창이다. GCN 방송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성도들이 함께할 성탄 점등식은 ‘천국’을 주제로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와 있는 듯한 황홀함을 선사해 줄 것이다.

본당 내부는 디자인선교회, 본당 로비와 3성전은 청년선교회, 성전 외부는 사론선교회, 2성전과 6성전은 가나안선교회, 4성전은 아동주일학교, 5성전은 학생주일학교에서 성탄 장식으로 주님께 감사의 향을 올려드리며, 시설관리국과 차량국 등 교회 직원들도 참여한다.

특히 디자인선교회와 사론선교회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시 교회 안팎을 아름답게 장식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에게 행복을 더해 주고 있다.

미술선교회로 시작한 디자인선교회는 1994년 9월 미술관련 분야 전공자들과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는 성도들이 창립이나 성탄 등 교회 큰 행사 시 무대 세트 꾸미기, 단 꾸미기, 성탄 장식 등으로 활동을 시작

했다. 이후 2000년에 디자인선교회로 이름을 바꿨으며, 주로 부활절, 교회 창립, 성탄시 내부 장식을 맡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계 수련회, 교육 등 교회에서 진행되는 행사나 모임에서 관련 분야를 맡고 있다.

현재는 미술이나 디자인에 재능을 가진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진실 자매는 “별재 아닌 것 같았던 제 달란트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밤을 새워 봉사해도 행복하고 다음날 피곤하지도 않아요. 앞으로 가나안 시대에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기획과 큐레이터 등 이루고 싶은 꿈이 많아요.”라고 말했다.

2015년 디자인선교회 회장 최민경 집사는 “디자인선교회 봉사가 제 믿음 성장에 큰 도움이 됐어요. 이를 통해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담당 분야의 매출이 늘어나는 축복도 받았지요. 회원들도 합격이나 취업, 장학금을 받는 등 은혜가 넘칩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저희가 맡고 있는 본당 내부 디자인은 교회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식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관련 분야 공

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2001년에 시작한 사론선교회는 다양한 재료와 소품들로 교회 창립, 성탄, 무안단물 기념행사 등에서 아름다운 작품들을 선보여 영광 돌리고 있다. 부장 임낙홍 장로의 따뜻한 섬김 가운데 회원들은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주셔서 봉사할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하다며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 정성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다.

사론선교회 회장 이경은 권사는 “우리는 모이면 더 행복해져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봉사로 드리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해 주시는 걸 경험해요.”라고 말했다. 백일 작정 기도 중에 사론선교회로 인도 받았다는 부회장 한숙희 권사는 “저의 손길이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감당하다보니 믿음도 더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잘 키워주셨어요.”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사론선교회 회원들은 물질의 축복, 장막의 축복, 건강의 축복 등 크고 작은 간증이 넘치며 봉사를 통해 마음이 넓어지고 영혼이 잘되는 체험도 하고 있다.

또한 사론선교회는 가나안 성전 시대를 대비해 세계적인 교회의 위상에 걸맞는 더욱 수준 높은 작품으로 영광 돌릴 비전을 이루기 위해 목공, 꽃꽂이, 풍선아트, 컴퓨터 그래픽 등 관련 분야 공부는 물론 박람회나 전시회 관람을 통해 미적 감각을 익히는 데에도 투자하고 있다.

이처럼 귀한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디자인선교회와 사론선교회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주 안에 하나 된 아름다운 영의 마음을 이뤄가고 있다. 앞으로 맞이할 가나안 성전 시대에 이들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하며, 주를 위한 이들의 땀과 열정이 하늘나라 천국 집에 아름다운 보석들로 새겨질길 소망한다.

한편, 여선교회총연합회에서는 매년 추수감사주일이면 수백 가지의 곡식과 과일, 채소 등 극상품의 열매들로 단 위를 풍성하게 장식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다. 또 예배국 미화부에서는 매주 영감 어린 꽃꽂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간음하지 말지니라”  
(출 20:14)

#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런 현저한 육체의 일을 행할 때는 회개의 영조차 받기 어렵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이처럼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 간의 일뿐 만 아니라 짐승과 혹은 동성 간의 범죄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육체적인 죄들을 엄하게 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결코 세상 풍조를 좇아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 2. 마음의 간음도 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의 일들이 그런 것처럼 사람이 행함으로 범죄하기까지는 먼저 마음에 죄악을 품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해를 입히며 마음에 분을 품기 때문에 헐기도 내듯이 마음에 음욕을 품을 때는 결국 행위적인 간음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음에만 품고 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요, 죄의 뿌리는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사람의 마음에서 간음을 버릴 수 없다. 버리고자 노력할 뿐이다.”라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비록 사람으로서는 못해도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능력을 받으면 마음의 죄성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사하시고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주셔서 도와주시므로 마음에서 죄성을 뽑아버리면 아예 비진리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죄를 버리는 과정에서는 같은 죄성이 계속 나오는 것 같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해 죄악을 버리고자 한다면 결코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양과 껌질을 벗겨도 다시 비슷한 속껌질이 나오지만 계속 벗기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노력

하는 만큼 변화되며 결국 온전히 성결될 것을 믿고 소망으로 달려가야 하지요.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혹 순간적으로 간음이 틈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간음했다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생각 속에 틈탄 것을 계속 상상하고 발전시켜 나갈 때가 문제이지요.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즉시 회개하며 온전히 성결되고자 노력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 3. 영적인 간음을 해서는 안됩니다

육체의 간음과 마음의 간음은 육적인 의미의 간음입니다. 이런 육적인 간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지요. 영적인 간음이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믿음이 있다 해도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탐심이 있으면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낳고 더 나아가 영적인 간음이 됩니다.

그러면 7계명의 ‘영적인 간음’과 2계명에 나오는 ‘우상 숭배’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영적인 의미의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신으로 섬기는 경우가 육적인 의미의 우상이라면,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해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는 영적인 의미의 우상입니다.

초신자 때는 믿음이 약하므로 하나님보다 돈이나 명예, 가족을 더 사랑하는데 이것이 영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경이 참이요, 천국과 지옥을 믿으며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깨닫지요. 이렇게 분명한 믿음이 생겼는데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어둠에 속한 것들을 취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며 영적인 간

음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서로 마음 다해 사랑하기로 언약한 부부와 같은 관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일이 많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 주신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자기 욕심에 따라 미혹되니 이방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섬긴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가 영적인 간음입니다(대상 5:25).

한 예로, 북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므로 영적으로 간음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 당했는데 남 유다 역시 이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겼습니다(렘 3:8). 이렇게 간음죄를 범한 이스라엘은 결국 이방인들의 칼에 멸망했습니다.

오늘날의 경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신부입니다(고후 11:2). 그런데 주를 믿고 성령을 받아 주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며 비진리와 타협한다면 이는 곧 영적인 간음이 됩니다(약 4:4). 주님을 배신하고 간음한 사람을 주님의 신부라고 할 수 없으며 장차 주님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 육적인 간음보다 더 무서운 죄’라고 한 것입니다. 예컨대, 동생이 형에게 욕하고 침을 뱉었다면 그나마 회개할 때 용서해 줄 여지가 조금은 있지만, 아버지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는 너무 패륜적이지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간음이 한계를 넘으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니 세상에 더 물들고 주님을 현저히 못 박는 죄들을 범함으로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히 6장, 10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간음은 물론 영적인 간음과도 전혀 상관없이 오직 진리만 사모해 마음에 채워나감으로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 기쁨으로 혼인 잔치에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전에서 ‘간음’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부부간이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예전에 간음은 아주 나쁜 죄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람의 양심이 무뎠지고 죄의식이 약해져 쉽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처럼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늘 깨어 있어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롬 13:12). 십계명 중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7계명에는 단순히 행위적인 간음을 금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 1. 육적인 간음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행위적인 간음에 대해 대표적인 육체의 일로서 구원조차 받지 못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갈 5:19-21).

고린도전서 6장 9-10절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물론 아직 진리를 잘 모르는 초신자라면 하나님께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진리를 아는 사람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7호선 남구로역에서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3:00 PM, 9:00 PM, 11:00 PM, 11:00 PM, 7:00 PM, 8:00 PM, 9:00 PM, 4:00 PM, 3:00 PM
주일 저녁예배,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금요철야예배, 수요일예배,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토요일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일찬양예배 [이동부],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합당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 1.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가?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셨다. 앓은뱅이가 일어났고 문둥병이 치료됐으며, 소경이 눈을 뜨며 병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됐으며 귀신이 떠나갔다. 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졌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어느 날, 구걸하기 위해 길가에 앉아 있던 소경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눅 18:38) 하고 외쳤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기에 분명 자신의 눈을 뜰 수 있게 하실 수 있다고 마음 중심에서 믿은 것이다.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분임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윗의 자손에게서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서 믿고 신뢰할 때 응답받을 수 있다.

## 2.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첫 사람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살면서 선악과를 먹기 이전, 즉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죄가 들어오고 그때부터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됐다(창 3:17).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곧 하나님의 공의이다.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해야 소산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땀 흘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했고,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장면이 나온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셨다는 기록이 있다. 하물며 피조물의 입장에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를 응답받으려 한다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 3. 온전한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고 있는가?

누가복음 18장 39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부르짖는 소경에게 제자들이 “잠잠하라”고 꾸짖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자 이 소경은 더욱 심히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간절한 심정으로 간구한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내보인 것이다.

만일 소경이 “잠잠하라”고 꾸짖음을 받을 때 기분이 상하거나 낙심해 잠잠했다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응답받기 위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했기에 결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대로 정녕 응답받기 원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간절히 매달리는 겸비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

## 4. 겹옷을 내어 버리는 순종의 행함이 있는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거지 바디매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심히 크게 소리 지르며 간구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오게 하시자 겹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막 10:50).

그런데 거지의 겹옷은 더럽고 심하게 냄새가 나지만 거지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필수품이다. 자신의 몸을 지켜 줄 수 있는 단 하나뿐인 재산이기 때문이다. 바디매오는 예수라는 분은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으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치료해 주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병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좋으신 분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 냄새나고 추한 옷을 입고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기에 즉시 순종해 겹옷을 내어버린 것이다.

여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추하고 냄새나는 모든 죄를 벗어 버려야 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마음 안에 계신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는 죄들을 낱낱이 회개해서 깨끗한 마음이 되고, 성령께서 주관하신 것을 주저함 없이 순종해야 한다.

## 5. 자신의 입술로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소경에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을 알고 계시지만 굳이 물으신 까닭은 무엇일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에 소경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고, 그대로 응답된 것을 볼 수 있다(눅 18:41-43).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November**  
2014.11.23 ~ 11.29

이재복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십자가의 도 13-17
- 관능
- 믿음의 분량 16-20
- 축복 5
- 창세기 강해 84-88
- 지옥 4-8
- 일곱교회 11-15
- 진정한 사랑
- 요한계시록 강해 42
- 하나님을 만나려면

GCN TV설교

- 성경 속에 사는 교회 1 (이수진 목사)
- 마음의 향 2 (이미영 목사)
- 99.99 (이미영 목사)
- 영의 세계 23 / 능력 1 (이희선 목사)
- 생명수 8-9 (신동초 목사)
- MIS 강의 16 / 열재앙 2 (정구영 목사)
- 그 분이 이고셨네 (조수열 목사)

신규 프로그램

- 내 마음의 찬양 1
- 창조와 과학 1

예능 프로그램

- 뷰티풀 라이프 12
- 알콩달콩 아여쁜 울동 12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40
- 즐거운 요리 20
- English 3
- 옛날 옛적에 1
- 흥겨운 소리 5
- 모두 드려요 18
- 플로리스트 5
- 만민 지킴이 10

- 회상 20
-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2
- 2014 지역장 조장 구역장 교육 1-2

해외성회 및 교육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2003 러시아 연합대성회

### “성결의 복음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스타그네예프 목사 (러시아 생명의 양식 교회, 43세)

저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러시아 정교회에 다녔지만 형식적인 신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 개신교 교회에 출석하면...

1995년부터 신학 공부를 하고 1996년에는 가취나 시(市)로 이주해 10명 정도 모이는 가정교회를 만들었지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며 열심히 전도하니 교회는 날로날로 부흥했습니다.

저는 '2003 러시아 연합대성회' 때 감사 이재록 목사님께서 설교 후 단에서 해주신 전례를 위한 기도로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후 감사 이재록 목사님의 말씀을 더 접하고자 목사님의 저서들을 읽고 TBN 러시아 방송을 매일 밤 시청했으며, 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를 통해 설교도 들었지요.

특히 이 목사님의 '천국' 시리즈 설교를 들으며 천국 소망이 넘쳤고, 저서 『 믿음의 분량』을 읽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천국 처소가 정해진다는 사실에 영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주제 설교 말씀은 제게 큰 믿음과 위안이 됐지요. 이후 저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민중앙교회에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러시아 목회자협의회 모임에서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예수교러시아 연합성결회 총회장)님과 교제를 나누던 중, 만민중앙교회에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기뻐했지요.

드디어 2011년,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공항 영접부터 각종 모임, 찬양, 기

도 등 모든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감동이 넘쳤지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전 세계 1만여 지·협력교회를 두고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권능의 종이심에도 아주 겸손하고 인자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 람이었고, 목사님에게서 영혼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느꼈지요. 저는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를 받았습니 다. 그 뒤 저희 교회는 두 배로 부흥했고, 그분의 겸손과 성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본받아 성도들을 사랑하며 가르치니 성도들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2014년 6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수진 목사(만민중앙교회 교역자회 회장)님을 강사로 목회자 세미나와 권능의 손수건 집회(행 19:11~12)가 있었습니다.

세미나는 이 목사님의 저서 『 믿음의 분량』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구체적인 설명과 예화를 통해 다시 한 번 성결되고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고 뜨거운 불이 임하더니 6개월간 고생하던 허리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지요.

전 세계 72억의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이재록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 “신경쇠약과 우울증에서 벗어나니 날아갈 것 같아요”

저는 2000년부터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 자녀 문제로 인해 5년 전부터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고혈압과 협심증까지 와서 고통스런 나날을 보냈지요. 우울증은 약을 복용할지라도 증세를 억제시킬 뿐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 12월 한국으로 온 후에는 여러 교회를 다녀 보았지만 설교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교회를 만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 하며 교회를 찾았지요.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2005년 9월부터 밀양만민교회(담임 문태규 목사)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들을 보며 저도 믿음으로 치료받고 싶었지요. 하지

만 약을 끊으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두통과 함께 열이 동반되면서, 치고 박으며 울고 싶고 막 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제 믿음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었지요.

지난 8월 초에는 '2014 만민 하계수련회' 첫날 교육 후 은사집회 시 수많은 사람이 당회장의 기도를 받고 사력이 회복되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등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목도했습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서도 치료받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며 매우 민망하고 죄송했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목자의 권능으로 치료받는데, 나도 이제 믿음을 내보여야겠다.' 결단하며 진리를 알지 못했다 때 우상 숭배한 것과 주님을 영접한 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끊었는데 바로 불안해지고 고통이 따랐



남편 지동호 집사와 함께한 이정금 집사 (밀양만민교회, 61세)

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겨나갔습니다.

7일째는 심한 고비가 왔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며 설교 말씀을 들어 보았지만 진정이 안 됐습니다. 이리저리 온 방을 텅구는데 양떼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

시는 당회장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저는 '도와주세요! 꼭 승리할 수 있어요!' 라고 마음으로 외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양쪽 눈 옆에서부터 이마를 향해 무엇인가 핏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에 이게 뭐지!' 하는 순간 양쪽 눈 옆에서 올라오던 것이 서로 마주치더니 '뽕' 소리와 함께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머리가 아주 개운하고 시원해졌지요. 제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이후로는 불안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하며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사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지요.

많은 성도님이 제게 젊어지고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는 아들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아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을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회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서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안로 76, 3층 ☎010-8020-7333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하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새창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서양만민교회 충북 괴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신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안로 22, 은성빌딩 5층 ☎031)485-9143, 010-4201 2073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경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430-3312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7103-4097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릉로 18, 아람B/D ☎031)905-2419, 010-2276-1014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430-3312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